



##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2) God Is Near (2)

### 치유가 필요할 때 When Healing Is Needed (요한복음 John 5:1-15)

1. 치유가 필요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Confess to God your need for healing.
2. 원망과 미움의 대상을 용서해야 합니다.  
Forgive those you resent or hate.
3.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세요.  
Listen and obey the Lord's voice.

## 오이코스나눔지

odpcoikos

1.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치유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치유가 필요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Jesus asked the man who suffered for 38 years, “Do you want to be healed?” The Lord wants us to acknowledge that we cannot heal ourselves and to seek his help. But there are times we don’t recognize our need for healing. What do you think is the reason?

2. 38년 된 병자는 육신의 병으로 인해 마음의 병이 들어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온전한 치유를 누리려면 용서를 해야 합니다. 왜 용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누구를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The man’s physical sickness affected his heart to be filled with resentment. If we desire to experience a wholistic healing, we must forgive. Why is it difficult to forgive? Whom should you forgive and how?

3.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1) 과거를 결별하는 순종과 (2) 온전하게 하실 약속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귀를 기울이며 순종해야 할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Jesus told the sick man, “Take up your bed and walk.” His command required (1) obedience to leave the past behind and (2) determination to hold on to the promise of restoration. What is the Lord’s voice that you should listen and obey?